

아르누보양식의 조형적 특성연구

— 르네랄리크·에밀갈레·루이스 컴포트 티파니·빅토르오르타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은 정*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아르누보양식의 일반적 고찰

1. 아르누보의 개념 및 형성배경
2. 아르누보 양식의 특성
3. 아르누보양식의 유형분석

III. 대표적 아르누보 작가·작품에서 나타난

식물모티브의 조형분석

1. 르네 랄리크 (René Lalique)
2. 에밀 갈레 (Emile Galle)
3.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 (Louis Comfort Tiffany)
4. 빅토르 오르타 (Victor Horta)

IV. 아르누보양식의 조형적 특성

V. 결론

요약

예술을 논함에 있어 ‘과학의 진보’와 ‘인간의 정서’라는 두 가지 문제의 상충은 끊임없이 대두되었다. 과학의 편리성,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본연의 감성인 ‘자연’은 점차 크게 자리잡아갔다. 20세기말부터 성행하던 다소 삭막하게 느껴지는 미니멀리즘을 벗어나 점점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자연주의가 강조되었고, ‘자

* 단국대학교 강사

연'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기계와 과학에 의해 삶이 양적으로 향상되어질수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연'에 대한 향수가 인간에게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자연'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고자 아르누보양식의 표현요소를 도입하여, '자연'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조형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아르누보는 자연물의 유기적인 형태로부터 모티브를 찾아 이것을 양식화하여 장식미술로 적용하였다. 이는 과거의 양식에서 인용과 절충을 반복하는, 역사주의적 전통을 과감히 개혁함으로써 현대디자인의 문을 열었고, 더불어 미술을 모든 생활에 실용화하려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갖는 양식이다. 신예술을 의미하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번성했던 아르누보는 한 세기가 지난 현재에 와서 재평가되고 수용되어 다양하고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자연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아르누보 양식은 현대에 오면서 내추럴리즘이 주류를 이루고, 여성스런 로맨틱시즘이 유행하면서 패션, 가구, 유리 공예, 보석 공예 등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에서 모티브로 부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르누보에서 나타난 식물모티브를 적용한 다양한 분야의 아르누보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형태적 요소와 표현요소의 특성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타난 공통된 조형미를 분석하고자하였다. 아르누보양식에서 나타나는 섬세하고 화려한 곡선의 장식미와 형태의 부드럽고 유려한 곡선표현의 효과적인 디자인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창의적으로 분석된 조형이미지로서의 아르누보 식물모티브를 디자인에 새롭게 시도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주제어 : 아르누보, 장신구, 디자인, 장식예술, 르네탈리크

I. 서론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예술사조는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발생하고 발전되어 나아갔다. 이러한 의미에서 19세기말에 발생한 아르누보(Art Nouveau)는 산업

혁명으로 인해 단순한 반복이나 모방에 국한된 예술을 새로운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조형예술로 이끌었다.

인간과 자연을 매개해주는 새로운 예술의 휴머니즘은 ‘자연의 있는 그대로’를 예술로 끌어올린, 100년 전 마치 전염병과도 같이 범장르적 · 범세계적으로 일파만파로 번져나간 아르누보 양식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세기말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자극 받은 새로운 예술로서 아르누보는 유태주의 및 상징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맞이함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은 실용성과 편리지향으로 치달으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가왔고, 사회 문화전반에 있어서 새로운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무언가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확립되어 고유성을 상실한 현대사회에서 아르누보양식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인 식물의 유기적인 조형성을 여러 장식예술작품을 통해 분석하고 디자인에 적용함으로써 아르누보양식의 의미를 돌아봄과 더불어 현대적 실용디자인의 재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아르누보양식에서 나타난 식물모티브를 다양한 장식예술분야의 작가와 작품을 통하여 형태유형과 표현요소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가능성을 보고자하였다.

그 이론적 고찰로 첫 번째, 아르누보양식의 개념과 형성배경을 알아보았고, 아르누보양식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아르누보양식의 작품을 통하여 이에 나타난 식물모티브의 형태유형분석을 하였다. 그 중 식물모티브를 바탕으로 해석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작품을 창조한 건축의 빅토르 오르타(Victor Horta), 장신구·보석공예의 르네 라리크(René Lalique), 유리공예의 에밀 갈레(Emile Galle),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Louis Comfort Tiffany)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I. 아르누보양식의 일반적 고찰

1. 아르누보의 개념 및 형성배경

“아르누보(Art Nouveau)¹⁾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기계문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어 유럽에서 대단히 번성했던 새로운 미술양식으로서 19세기 대부분의 기간동안 디자인의 흐름을 지배했던 신고딕양식, 신르네상스양식 등의 역사적인 양식으로부터 탈피한 과도기적 장식미술양식이다.”²⁾

‘인간존중’에 기본 동기를 두고 ‘자연’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움을 추구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예술운동인 아르누보는 모든 예술분야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현대예술의 기본 이념을 제공하였다.

아르누보의 형성배경이 된,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에 의해 영국에서 발생한 미술공예운동(Art & Craft Movement)³⁾은 19세기 전반의 기계문명에 대한 반성과 과거의 절충양식으로부터 탈피하여 공예품의 미적 품질을 높이고자 중세의 길드조직과 스테인드글래스와 같은 중세고딕의 형식언어에서 새로운 조형을 찾아 수공예의 혁신을 가져오려 하였다.

아르누보와 비교하여볼 때, 미술공예운동은 과거의 형태와 양식을 거의 그대로 빌려 쓰는, 그야말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중세시대 공예로의 복귀와 같은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역사주의(historicism)⁴⁾로부터 탈피하고 자유롭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움직임에서 ‘구조와 기능과 장식의 통일’을 기본원리로 하는 아르누보(신예술)가

1) 아르누보: ‘Art’와 ‘Nouveau’즉, ‘신예술’이라는 뜻의 미술사 또는 미술비평용어

2) 윤성희, [아르누보양식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서울, 1988, p. 3

3) 미술공예운동(Art and Craft Movement): 1860년대부터 20세기초까지 영국에서 발전하여 미국과 북유럽으로 전파된 장식미술과 건축운동. 디자이너이며 사회주의자인 모리스와 미술비평가인 러스킨의 주도로 미술공예운동에 가담한 미술가와 디자이너들은 미술가와 장인의 우위성에 대한 믿음을 피력하였고 미술의 위계질서에 도전하였으며, 디자인에서의 단순성과 합목적성을 추구하였다. 이들은 종종 중세적 양식에 의존하였지만 역사주의는 거부했다. 본질적으로 반산업적인 이 운동의 많은 추종자들은 이상적인 길드와 공동체를 통해 전통적 공예를 부활시키려 하였다.

4) 역사주의(historicism): 현재를 표현하기 위해 새것을 창조해내기 보다는 특정의 장식양식을 갖지 못한 채, 다양한 장식의 리바이벌과 절충을 반복하는 등 과거의 형태와 양식을 거의 종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생겨나게 되었다. 더불어 일본의 개항으로 일본문화가 유럽에 유입되면서 일본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아르누보는 과거의 역사적 양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조형미를 창조하여 순수예술과 응용예술의 조화를 꾀한 점을 미루어, 미술공예운동의 더욱 발전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르누보는 벨기에에서 일어나 전 유럽에 영향을 미쳐 각기 다른 특성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그 영향을 받아서 시작되었으나, 이를 활발히 발전시켜 '900년 양식'이라고 불리는 최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유겐트 스타일(Jugend Stil)', 이탈리아에서는 '스틸 리버티(Stile Liberty)',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에서는 '아르테 호벤(Arte Hoven)', 오스트리아에서는 '세세션(Secessin)', 영국과 미국에서는 '모던스타일(Modern Style)' 등으로 불려져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아르누보는 결코 동질적인 운동은 아니었다. 그 다양한 뿌리는 다양한 아르누보를 낳았다. 프랑스에서는 신로코코의 이념과 모티프의 영향이 컸다면, 벨기에와 독일어권 국가들에서는 영국의 디자인 개혁 전통의 영향이 컸다.”⁵⁾

대표적인 아르누보 디자이너는 헥토르 기마르(Hector Guimard), 헨리 반 데 벨데(Henry van de Velde), 오브리 빈센트 비어즐리(Aubrey Vincent Beardsley) 와 찰스 레니 매킨토시(Charles Rennie Mackintosh) 등으로 아르누보의 다양한 발전을 이루었다. 회화뿐만 아니라 건축, 공예, 의상 등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 영향을 끼쳤으며 일시적이거나 전 유럽을 휩쓸었다. 현재에도 아르누보양식은 건축, 인테리어, 그래픽 등의 여러 분야에 다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1910년 이후에 아르누보는 퇴조하여 결국 특징적인 장식양식으로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아르 누보는 20세기 디자인의 미적 통일성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아르누보는 응용미술과 순수미술 내에 확립되어 있던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19세기 후반 여러 나라에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흐름이다.”⁶⁾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소멸되어갔으나, 아르누보의 소재, 방법, 의의를 지향

5) 스티븐 에스쿠릿, [아르누보], 서울, 한길아트, 2002, p. 60

6) 앨리스타어 덩컨, [아르누보], 서울, 시공사, 1998, p. 7

하는 기본 태도를 받아들인 루이스 설리번(Louis Sullivan), 아서 헤이게이트 맥머도(Arthur Heygate Mackmurdo), 헨리 반 데 벨데(Henry van de Velde),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i) 등과 같은 건축가들과 르네 칼리크(René Lalique), 에밀 갈레(Emile Gallé),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Louis Comfort Tiffany) 등의 공예가와 다양한 20세기의 디자이너에 의해 변모, 발전해갔다.

아르누보는 전통을 과감히 개혁하고 건축, 가구, 제품, 패션, 그래픽 등의 생활환경 전반에 적용하고 기여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현대디자인의 문을 연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갖는 양식이다.

순수미술과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아르누보 역시 퓨전적인 현상으로 응용예술(minor art)을 순수예술(major art)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공적을 수행하였다.⁷⁾

2. 아르누보양식의 특성

아르누보양식에서 보여지는 특성은 비대칭적인 형태구조, 자연적인 모티브와 유기적인 선의 사용, 신비스러운 색채에서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었다.

“아르누보양식의 구성적 특성은 모티프의 표현과 함께 예술가들의 감정이입으로 이해되며, 이는 ‘선과 선’, ‘색채와 색채’ 또는 ‘선과 색채’의 대비나 상호작용에 의해 창조된다.”⁸⁾

(1) “형태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대칭적인 구조가 가장 큰 특성으로 나타난다.”⁹⁾ 비대칭구조는 ‘좌우대칭의 양식은 새로운 예술의 부드럽고 감각적인 선이 굽이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아르누보양식에 있어서 이러한 불균형은 생명과 운동을 암시하는 격동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르누보양식은 불균형에 의한 조화, 과장된 비례, 좌우비대칭이 최대한 강조되어 거의 모든 표현에 나타나게 된다.

(2) 자연적인 모티브와 유기적인 선의 도입 측면에서 보면, 식물과 같은 유기적 형

7) 장순찬, [Art Nouveau Fashion],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1984, p. 22 ~24

8) Martin Battersby, [Art Nouveau Style], London, Hamlyn Publishing group, 1969, p. 12

9) 유사라, [아르누보양식의 조형미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서울, 2001, p. 7

태에서 영감을 얻어 떠나면 환상의 세계를 연상시킨다. 유기적으로 펼쳐진 곡선에 모든 디자인의 근본을 두며, “그 장식의 모티브 또한 자연의 유기적(organic)¹⁰⁾형태에서 얻음으로서, 모든 유기적 생명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정신세계를 보고자 하였다.”¹¹⁾ 곡선 적인 화려한 양식이 풍미하여 건축의 외관이나 일상 생활용품에 자연물의 유기적 형태에서 비롯된 곡선적인 장식을 즐겨 사용한 것이 눈에 띈다.

꽃과 식물, 여인, 곤충이나 동물 등의 유기적인 형태를 모티브로 한 유동적인 형식을 사용하였다. 여인상과 바람에 나부끼는 머릿결 등의 종래에 그다지 사용하지 않았던 소재에서부터 담쟁이덩굴의 감아 붙인 모습과 백합, 난초, 튜립과 같이 길고 윤곽이 뚜렷한 좁은 잎새를 가진 식물모티브와 백조, 공작, 조개, 나비, 잠자리 등에 이르기까지 생동감 있는 형태를 유연하고 다채로운 유기적 곡선을 위주로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아르누보 양식은 식물의 형태에 기초한 자유롭게 흐르는 선을 가장 중시하였다. 특히 자연에 대한 사실적 묘사보다는 이를 재구성하고 직관에 의해 추상화하였다. 그로 인해 공예의 장식과 구조에 거의 기묘하고 추상적인 곡선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아르누보에 영향을 준 사상으로는 유미주의(Aestheticism)¹²⁾와 상징주의(Symbolism)¹³⁾를 들 수 있는데, 사실적인 표현이나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상징적인 표현과 환상적인 표현들로서 내면적인 근간을 보여주고 있다.

“황홀한 행복감과 공중에 떠도는 듯한 느낌, 현실로부터의 자유로운 환상 등 이러한 상징주의적 감수성은 세기말의 예술양식인 아르누보에 직결되는데, 극히 호화롭고 장식적이며 연약하고 섬세했던 이러한 양식과의 유사성은 상징주의적 감수성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⁴⁾

10) 유기적(organic): 동물이나 식물의 활력과 통일이 있는 형태적 물질을 칭함.

11) 윤성희, [아르누보양식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서울, 1988, p. 17

12) 유미주의(Aestheticism): 미(美)의 창조를 예술의 유일한 목표로 한 19세기 후반의 양식이다. 예술의 독자성을 중요시하여 내용보다는 예술적 형식과 기교를 중시하였다.

13) 상징주의(Symbolism): 19세기 후반 유럽의 문학과 시각미술 분야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대개 신화적·신비적·비교적 주제를 통한 상징적 의미의 전달에 관심을 두었다. 상징주의 미술가들은 일관된 양식을 공유하지 않았지만 색채에 빛에 대한 인상주의자들의 집착에 반대하고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드 피르’와 ‘클림트’같은 많은 상징주의 화가들은 장식미술에도 관심을 가져 아르누보 미술에 기여했다.

14) 에드워드 루시, [상징주의 미술], 서울, 열화당, 1987, p. 222

이에, 아르누보양식의 표현은 상징주의 형태와 문양의 미학을 추구하기 위해 식물과 꽃, 흐르는 물과 파도와 같은 주제를 ‘선(線)’으로 처리하는 조형적 의지를 담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휘슬러(Whistler, James A.M.)에 의해 전해진 일본의 영향으로 일본 목판화에서 보여지는 정교한 세부묘사, 색이나 패턴에서 비대칭적 요소, 강하고 곡선적인 윤곽선 강조를 받아들여 형태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자포니즘(Japonisme)¹⁵⁾이라 불리는 일본미술의 영향은 단일의 영향으로는 아르누보에 가장 중요하게 미친 영향이라고 까지 표현된다.”¹⁶⁾ 아르누보의 흐르는 듯한 유동적인 선, 그 최소한의 선으로 표현되는 자연의 풍부한 묘사, 비대칭의 구성, 나뭇잎 모양의 형태와 육감적인 모양은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양의 조형적 표현을 아르누보의 조형요소로 자연스럽게 변형시켰다.

아르누보는 그 표현에 있어서 면보다는 선을 중시하여, 선으로 그 감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표현된 선이 여백과 면을 구분 없이 통합시킴으로써, 아르누보는 2차원적인 색다른 면의 구성에 의해 표현되어졌는데, 루이스 킴포트 티파니(Louis Comfort Tiffany)의 다양한 스테인드글래스 작품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이렇듯 아르누보양식은 원근감과 입체감이 생략된 윤곽선을 강조하는 평면적이고 색다른 표현양식을 갖추게 되었다.

주로 직선보다는 구불구불하고 서로 교차하는 곡선이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곡선을 통해서 자연의 생명에너지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사물의 본질이나 자연의 창조활동의 무한한 과정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회화 부분에서 단순한 형태, 원근감이 없는 평면 공간, 굽이치는 선으로 인한 상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브리 빈센트 비어즐리(Aubrey Vinc-

ent Beardsley), 툴루즈 로트렉(Henri de Toulouse-Lautrec),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 알폰스 무샤(Alphonse Mucha),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등 유명 화가의 그림과 포스터에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

“과거의 로코코(Rococo)양식은 아르누보에 적합하기 쉬운 언어의 형태로 포함되어

15) ‘일본미술선호경향’으로 1854년 미국과의 우호조약으로 무역관계가 성립되면서 몇 세기 동안의 일본의 고립이 끝난 후인 19세기 후반에 양식화되고 평면적인 일본의 판화와 장식이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일본미술은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심미주의 운동, 아르누보와 같은 많은 서구의 미술운동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16) Vivienne Becker, [Art Nouveau Jewelry], New York, E.P.Duton, 1985, p. 12

졌다. 18세기 로코코양식의 꽃을 모티브로 하는 우아하고 유기적인 곡선, 좌우 비대칭의 장식감각과 실내의 장식적인 통합개념은 모두 아르누보의 가장 본질적인 특색과 공통되는 점이다.”¹⁷⁾

비대칭적 균형과 유동적인 곡선의 선형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예는 다양한 건축물에서 보여진다. 건축물과 조형미술에서 모든 3차원의 입체 형태는 구조와 장식의 융합물을 창조하면서 유기적·선형적인 리듬에 휘말리게 된다. 특히 건축물에서 이러한 장식과 구조의 종합을 볼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철물·유리·세라믹·벽돌 등 재료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기둥과 대들보가 두꺼운 덩굴줄기와 같은 덩굴손을 펼치는 모양이 되고, 유리창은 빛과 공기의 소통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전체구조에서 막 모양의 부산물이 된다. 이러한 방법은 합리적이고 명확한 구조리는 전통적인 건축물의 가치기준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3) 아르누보양식을 색채적인 측면에서 보면, 화려한 칼라와 일본미술의 영향으로 인한 이국적인 정취로 나타나고 있다. 인상주의에 의해 형성된 부드러운면서도 환한 파스텔 색조(light keyed color Roses)가 주조를 이루었고 동양풍의 영향으로 클림트(Klimt)의 작품에서 보듯이 원색에 황금색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아르누보양식의 가장 큰 특성은 사치스런 재료의 사용과 섬세한 디테일, 장인 정신 그리고 아름다운 물결모양의 곡선 무늬에 있다.

아르누보양식은 그 표현에 있어서 유기적이고 움직임이 있는 모티프를 즐겨 사용했으며, 좌우대칭이나 직선적 구성을 고의로 피했다. 그리하여 디자인은 곡선과 곡면을 주로 사용하여 유동적인미를 표현했으나 반면, 상대적으로 구성의 견고함과 기능의 합리성을 소홀히 여겨, 기능을 무시한 형식주의적이고 탐미적(耽美的)인 장식으로 빠질 위험도 있었다. 아르누보가 비교적 단명(短命)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3. 아르누보양식의 유형분석

다양한 특성의 아르누보양식을 ‘최초로 아르누보를 포괄적으로 개관하려고 시도한’ 트후스디 매센(S.T. Modsen)은 그의 저서 <아르누보의 원천> (1956, 오슬로)에서

17) 이미경, [아르누보양식에 나타난 무늬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서울, 1992, p. 11

아르누보의 분류는 곡선과 직선의 대립이라는 가정에 입각하여 표현양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 추상적, 구조적, 상징적 아르누보양식(Abstrakt and Structural, Symbolical Art Nouveau style)은 벨기에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아르누보 초기에 나타나는데 매우 독창적인 C자 또는 S자의 유연하고 흐르는 듯한 동적인 선들이 패턴을 반복하지 않고 비대칭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나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생동하고 있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새로운 감각 미의 창조, 즉 생명력이 없는 전통적인 형태에서부터 생물학적인 형태를, 딱딱하고 엄격한 형태로부터 흐르는 듯 유연하고 미끄러지는 듯 튀어 오르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처럼 자연물이 양식화되어 나타난 활기찬 선의 리듬은 아르누보의 본질적 특성을 이룬다.

(2) 꽃과 유기적인 아르누보양식(Floral and Organic Art Nouveau style)은 아르누보 시기의 유럽 전반에 걸쳐서 전개되었는데 아르누보양식의 절정기에 해당되어진다. 초기의 아르누보 보다 더욱더 섬세한 선으로 세기말적인 정서와 세련미를 가지는 양식이다. 주로 자연물 특히, 꽃을 주제로 하여 유선형의 파도치는 듯한 울동감을 특색으로 한다. 꽃이 활짝 개화한 형태로 가장 화려한 표현을 나타내었으므로 「꽃의 양식」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꽃을 중심으로 한 식물을 그 주된 소재로 하는 아르누보 양식은 구조적 변혁보다는 꽃이 만발하는 것 같은 형태로 열광을 보였는데, 이들은 장식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선을 특색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구체적인 꽃의 형태를 잃지 않고 있다. 이 양식은 모든 생활미술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유리공예, 자수, 보석공예 등에 나타난다. 특히 건축가 오르타의 작품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3) 선적, 평면적 아르누보양식(Linear and two-dimensional Art Nouveau style)은 영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기하학적으로 전개되는 중간단계이다. 순수한 곡선의 장식미를 벗어나 직선적인 경향이 가미된 것으로 식물의 줄기와 같은 유기적인 선이 추상적 구성과 만나 기묘한 울동감과 긴장감을 준다. 꽃의 유기적인 곡선의 요소들을 강렬한 직선구조와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기하학적인 구성을 제시하였다. 찰스 매킨토시, 요셉 호프만(Josef Hoffmann), 오토 바그너(Otto Wagner)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글래스고파(Glasgow school)¹⁸⁾의 길게 늘린 듯한 직선적인 스타일도 이에

18) 글래스고우(Glasgow)파: 유럽대륙, 특히 비엔나에서 찬양 받은, 서정적 독창성과 상징적 복잡성을 갖춘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했다.

속한다. 호프만은 매킨토시의 심미주의에 유용성과 단순성을 가미하여 디자인의 간소화를 가져왔다. 대담한 외곽선과 상자 같은 선의 형태가 특징으로 의자, 소파(sofa), 벤치(bench) 등의 가구디자인에 주로 나타난다.

(4) 구성적, 기하학적인 아르누보양식(Constructive and Geographical Art Nouveau style)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된 후기 아르누보양식에 해당된다. 순수한 곡선적인 장식미에서 벗어나 직선, 삼각형, 사각형, 사선, 원, 점 등의 기하학적인 선과 구도를 주로 활용하였다. 아르누보의 특성인 생동감과 우아한 여전히 기본적인 특색으로 남아 있으나, 유기적이고 생기 있는 곡선은 점차 기하학적으로 엄격해져가며 비대칭적인 곡선은 그 유기성을 상실해 가는 단계에 이르렀다. 여기에 기계에 대한 찬양에서 비롯한 좀더 힘차고 직선적인 요소가 강하게 도입되어 기능을 중시한 현대적 감각을 뚜렷하게 발전시켜 갔다. 크리스토퍼 드레서(Christopher Dresser)¹⁹⁾가 대표적인 인물로 현대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다. 큐비즘(Cubisme)²⁰⁾과 기능주의에 더욱 가까워지며 금과 은도금을 하는 산업제품에 마름모, 정육면체, 삼각형, 구에 기초한 장식이 들어간 디자인이 나오게 되었다.

“아르누보는 자연물의 형태로부터 모티프를 찾아 이것을 유기적인 선으로 양식화하여 장식미술에 적용하였다. 과거의 역사주의적 전통을 과감히 개혁함으로써 진정한 현대 디자인의 문을 열었고 미술을 모든 생활에 실용화하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 양식이다.”²¹⁾

19) 크리스토퍼 드레서(Christopher Dresser, 영국(1834~1904)): 최초의 산업디자이너 혹은 장식미술가로서 자연의 형태와 장식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식물의 형태를 장식에 응용하기 위해 단순한 형태와 꾸밈없는 재료의 양식화를 사용함으로써 유명했으며, 형태와 기능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20) 큐비즘(Cubisme): 1900년부터 1914년까지 파리에서 일어났던 미술 혁신운동이다. 큐비즘이라는 명칭은 1908년 마티스가, 브라크가 그린 <에스타크 풍경>이란 연작을 평하면서 '조그만 입체(큐브)의 덩어리'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 피카소가 <아비뇰의 아가씨들>을 발표함으로써 급격하게 발전한 이 운동은 일반적으로 세잔느 풍의 입체주의(1907~9), 분석적 입체주의(1910~12), 종합적 입체주의(1913~14) 등 3단계로 나누어 고찰됨. '자연은 원추, 원통, 구(球)에 따라 취급한다.'는 세잔느의 설명은 큐비즘의 발단이 되었고, 그의 예술과 흑인 조각은 이 운동의 초기에 큰 영향을 끼쳤다. 큐비즘은 물체를 입방체처럼 분석, 분해해서 그 각 단면을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큐비즘 작가들은 르네상스 이후 서양 회화의 전통인 원근법과 명암법, 그리고 다채로운 색채를 사용한 순간적인 현실묘사를 지양하였다.

21) 김주연, [아르누보 양식을 통한 식물의 도자조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2, p. 10

Ⅲ. 아르누보양식에서 나타난 식물모티브의 조형분석

이 연구의 대상인 식물을 모티브로 표현한 다양한 장식예술 분야의 아르누보 작가들의 작품을 고찰하여 그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고, 표현방법과 형태유형을 분석하여 현대디자인에 활용 가능한 조형특징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르누보양식을 규정짓는 시각적 특징은 식물형태의 유기적인 선이다. 중력이나 뿌리로부터 해방된 구성적 장식은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거나, 우아하게 흐르는 듯 이어지기도 한다.

“아르누보의 특징은 식물을 모티브로 하는 유연한 곡선을 사용하여 장식적, 상징적 효과를 높인 것으로 그에 의한 환상성은 현대미술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²²⁾

아르누보양식에서 나타난 곡선은 구불구불하고 물결치는 듯 하며 음악적으로 울동하며 주의를 환기시키는 힘을 지닌 상징적인 선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주로 꽃과 넝쿨줄기를 모티브로 하여 유기적으로 형성되었다.

아르누보양식에서 표현된 여러 모티브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화려하게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온 식물모티브의 주된 소재는 꽃과 넝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곡선이다. 이러한 곡선 위주의 새로운 표현은 아르누보를 꽃의 양식, 물결양식, 당초양식이라 불리워지게 하였다.

꽃의 이미지는 백합을 비롯한 난초, 아이리스, 양귀비, 튜립 등 윤곽이 뚜렷하고 유기적인 운동감을 표현하기 적합한 꽃의 형태에서 모티프를 발전시켰다. 특히 백합의 줄기, 난초의 길고 섬세한 곡선, 양귀비나 튜립과 같은 짙은 색의 꽃과 길고 좁은 잎들은 매우 대표적인 모티브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꽃봉오리나 새싹도 중요한 모티프가 되었는데 이는 다가올 성장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새로이 꽃피우게 될 양식에 대한 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²³⁾ 이러한 꽃의 다양한 모티브는 아르누보양식 특유의 ‘꽃문양 장식언어’로 형성되었다.

넝쿨의 이미지는 담쟁이넝쿨과 포도넝쿨이 그 주된 소재로 사용되었다. 넝쿨의 끊임없는 울동과 운동의 구성은 두 가지의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첫 번째는 아르누보

22) 열화당 편집부, [현대 미술용어 사전], 서울, 열화당, 1984, p. 14

23) 윤성희, [아르누보양식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서울, 1988, p. 18

양식의 자연주의에 입각한 섬세한 묘사이고, 두 번째는 그 형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상징형으로 재창조된 형태이다.

위의 두 가지 식물모티브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곡선은 가장 보편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된 장식모티브였다.

위에서 언급한 아르누보의 식물모티브와 유기적인 곡선은 이를 나름의 표현방식으로 다양하게 해석한 장신구·보석공예의 르네 랄리크(René Lalique), 유리공예의 에밀 갈레(Emile Galle),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Louis Comfort Tiffany), 건축의 빅토르 오르타(Victor Horta)의 작품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1. 르네 랄리크 (René Lalique)

아르누보는 예술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장신구는 기능적인 오브제에 자신을 표현하려고 애썼던 아르누보 예술가들에게 좋은 표현영역이 되었다.²⁴⁾

장신구 분야에서도 식물모티브나 유기적인 곡선을 이용한 많은 작품들이 창출되었는데, 꽃과 길게 이어지는 식물줄기 등을 모티프로 하여 진주나 에나멜을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이 나타났다.

아르누보 장신구의 특징으로는 고도의 세련된 에나멜작업을 종종 꼽는다. 가장 인상적인 예는 금속바탕판 없이 섬세한 스테인드글래스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고난도의 플리크-아주르(plique-à-jour²⁵⁾)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독특한 소재인 뿔(角)의 사용이다. 뿔(角)은 연한 꿀색으로 표백한 다음 다양한 장신구로 조각되었다. 이와 같이 랄리크는 이전에 사용되지 않거나 하찮은 것으로 무시되어왔던 유리나 뿔, 거북이 등껍질 같은 재료를 보석과 혁신적으로 혼용하였다.

르네 랄리크(René Lalique, 1860~1945)는 아르누보시대에는 금속공예가로서, 그 이후 아르데코시대에는 유리공예가로서 활동한, 장식미술사상 가장 뛰어난 예술가이

24) 고명진, [현대 장신구에 있어서 아르누보의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1987, p. 1

25) 플리크-아주르(plique-à-jour): 에나멜 기법 중 하나로 얇은 금속으로 형태를 만든 후, 투명한 유색 에나멜로 채우면 양면에 모두 에나멜이 노출되는 기법이다.

<에나멜기법>

* 클루아조네(cloisonné): 금속바탕에 가는 줄을 붙인 후, 분리된 부분을 에나멜로 채우는 기법이다.

* 샹르베(champlevé): 에나멜을 채울 금속판의 부분을 도려내거나, 새기거나, 산을 이용하여 에칭하는 기법이다.

다. 금속공예에서 칼리크가 남긴 작품들은 최고의 걸작들로 인정된다. 이들은 수공예술의 꽃으로 표현되는 아르누보의 정신과 숨씨를 가장 잘 구현한 작품들이며, 당시까지의 세공분야에 새로운 양식과 언어를 제공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1900년 프랑스 비평가 Leonce Benedite는 그에 대하여 “진정한 혁명가... 낡은 벽을 허물고 확고한 전통을 뒤엎고 새로운 언어를 창조한 사람”²⁶⁾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활동 당시부터 근대 프랑스 주얼리의 해방자, 대가라는 비평가들의 갈채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센세이션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가로서의 변신은 그치지 않았다. 새로운 표현방법을 찾기 위해, 그리고 그의 상상력과 환상을 담아내기 위해 작가로서의 탐구는 계속되었던 것이다.²⁷⁾

칼리크는 섬세한 곡선과 장신구의 우아함을 잘 표현한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식물의 유려함을 비롯하여 여성의 아름다움에 이르기까지 ‘미의 극대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면밀한 자연관찰력과 색채와 질감에 대한 뛰어난 이해력은 그가 표현한 식물모티브를 더욱 섬세하며 생동감 있게 나타내 주었다. “물망초, 붓꽃, 마거리트, 영경귀, 겨우살이, 등나무 같은 식물의 전체 모습은 물론, 암술이나 꽃부리 등 각 요소에 대한 세부 묘사가 무척이나 감각적으로 섬세하게 표현되었다.”²⁸⁾ 칼리크가 선택한 식물이라는 소재는 그의 작품 중 가장 풍부한 어휘이며, 대부분 자연에 가장 충실하게 표현된 소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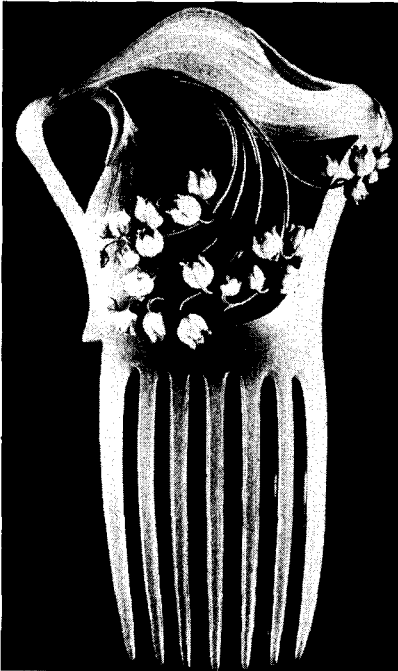
칼리크의 작품들은 모두 장신구(Jewellery)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성격에 의해 크게 나누어보면, 정신적인 주제를 다루는 비교적 비실용적인 경우와, 자연의 사실에 충실한 장식적이며 기능적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의 표현적인 작품들은 자연에서 그가 선택한 소재의 사실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깊은 환상과 상징의 세계를 암시한다.

칼리크는 평소의 작업에서 늘 재료자체의 시각적 효과와 작품 안에서의 전체적인 조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들을 착용하는 여성과의 조화를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칼리크가 만든 많은 장신구 중에서는 자연의 사실적인 아름다움을 충실하게 담아낸, 순수한 시각적 아름다움과 장식적 목적을 위하여 만든 많은 작품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는 어떠한 보석과 귀금속이라도 전체의 시각적 효과를 방해

26) Kenneth Snowman, [The Master Jewelers], New York, Harry Abrams Inc. 1990, p. 126

27) 전용일, “Rene Lalique의 금속공예” 국민대학교 조형논총 제13집, 국민대학교 조형연구소, 1993

28) 엘리스테어 덩컨, [아르누보], 서울, 시공사, 1998, p. 155



〈도판 3-1〉René Lalique [Horn haircomb] 프
랑스 1900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장신구의 가치란 보석의 크기와 질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비전과 장인적 기술에 있음을 작품에 요약해 냈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장신구에 사용하지 않았던 뿔이나 유리처럼 귀하지 않은 소재를 주로 사용했다.”²⁹⁾ 즉, 그는 소재의 재화가치를 뛰어넘어 그것의 순수한 조형적 가치와 전체적 조화에 집중했다. 보석과 귀금속으로 일관하던 당시까지의 세공분야에, 그는 조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상적 재료들과 준보석들을 과감히 끌어들이었으며, 이들은 랄리크에 의해 고도의 미적 소재들로 격상되었다.

“랄리크의 작품들은 그의 조형적 감각에 의해 힘찬 움직임 표현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매우 안정된 균형미를 보여준다. 가장 중

요한 점은 그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사실적인 묘사를 그 표현방법으로 삼았지만, 놀랄만한 추상미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 내면의 상징세계, 그리고 세기말의 탐미적 성향을 섬세히 담아낸 아르누보 최고의 성취로 기록된다.”³⁰⁾

(1) 〈도판 3-1〉 Lily of the valley (Haircomb, 1900)

르네 랄리크의 작품은 보석의 사용 역시 그것의 재화적인 가치가 아닌 미적 가치로서 선택하였고, 사용하였다. 색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하여 다양한 색의 준보석이 함께 사용되었다. 진주, 문스톤, 오판, 터키석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색다르게 기존의 장신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뿔과 유리를 사용하여 장신구의 재료의 폭을 넓혔다.

29) 클레어 필립스, [장신구의 역사], 서울, 시공사, 1999, p. 160

30) 전용일, “Rene Lalique의 금속공예” 국민대학교 조형논총 제13집, 국민대학교 조형연구소, 1993

흰색칠보로 만들어져 사실적으로 묘사된 은방울꽃들은 뿔로 조각된 빛의 추상적 형태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뿔을 사용한 몸체에서는 뿔이 가진 반투명성을 이용하여 농담의 효과를 연출하고 있다. 즉, 뿔을 서로 다른 깊이로 파내거나 이면에 다른 재료를 중첩시키거나 부분적으로 착색함으로써, 뿔 자체의 색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농담의 변화가 생겨 공간적인 깊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조각기법을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묘사된 잎맥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의 표현은 전체적으로 식물모티브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반면, 세부적인 모습은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기적인 식물의 선과 같은 줄기의 모습에서 울동감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2. 에밀 갈레 (Emile Galle)

에밀 갈레(1846~1906)는 1884년부터 가구공예를 시작으로 하여, 유리와 도자공예가로서 1901년에 설립한 에콜 드 낭시(Ecole de Nancy)³¹⁾의 리더이다. 그는 프랑스 유리공예를 현대적으로 부활시켰다. 그는 식물학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자연세계의 예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식물을 모티프로 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그의 작품은 18세기 로코코적요소가 가미된 감각적 자연주의와 자연세부묘사를 그 주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시(詩)적인 서정성과 생명력 있는 선(線)의 모든 속성을 추구하며, 아르누보 구성의 본질인 상감기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스타일로 발전시켰다.

아르 누보의 선두 격인 갈레는 1878년 만국박람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꽃무늬 유리공예의 성공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자연을 대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아르 누보 미학을 강조했다.

“갈레는 자신에게 무한한 창조적 영감을 제공하는 자연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알사스-로렌지방에 자생하는 각종식물을 전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꽃받침, 암술, 꽃부리 같은 세부를 묘사하여 식물의 소우주를 표현하고자 했다.”³²⁾

31) 낭시학파(Ecole de Nancy): 갈레, 마조렐, 돔 형제 등으로 구성된 미술산업지방연맹이 1901년에 낭시에 설립한 장식미술학교이다. 이 학교는 아르누보의 주요한 중심지로서의 낭시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었다. 현재 에콜 드 낭시 미술관은 이 지역에서 생산된 아르누보의 중요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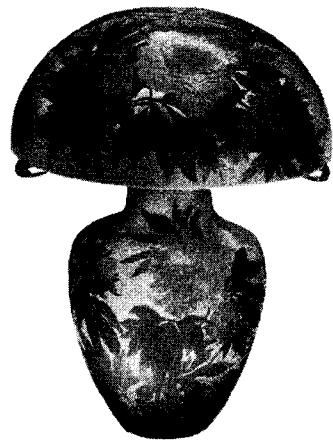
32) 앨러스테어 덩컨, [아르누보], 서울, 시공사, 1998, p. 105

그의 디자인은 식물을 모티브로 한 자연주의 원칙에 따랐고, 이는 낭시의 로코코 전통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네오-로코코와 아르누보가 적절히 합쳐진 형태의 식물장식은 주로 ‘선(線)’으로 나타내어 단순화되었다.

“갈레의 디자인은 유리를 변화무쌍한 예술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그 전까지는 칠이나 그림을 그려 넣는 정적이고 다채롭지 못한 재료였던 유리를 울동감을 표현하고, 무한정으로 색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내부패턴과 표면질감을 지닌 매체로 전환시켰다.”³³⁾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했다. 점점 더 기술적이고 장식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무한한 창조적 영감을 제공하는 자연 속의 제재에 기초를 둔 작품을 열정적으로 제작했다. 결국 그는 유리세공과 도자기, 가구제작에서 과거 양식들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에 이르렀다. 풍부한 상상력과 미묘한 변환, 장식적인 면에서 세련된 감각을 지녔던 갈레는 식물을 작품의 주요 소재로 하면서도 식물의 세계와 거리를 두었다. 작품에서 절묘한 전환의 효과를 주어 새롭고 독창적인 양식을 창출했다.”³⁴⁾

1878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에밀 갈레(1846~1904)의 작품들은 대담한 조형과 문양, 기술을 구사하여 세계 유리 조형을 선도하게 되었고, 그 시대까지의 유리조형의 이미지를 한번에 변화 시켰다. 에밀 갈레는 중국의 건용 유리에서 힌트를 얻어 유백색의 바탕에 세 겹의 색유리를 쓰는 작품을 발표했다. 동양 미술에 강한 영향을 받은 에밀 갈레는 새로운 소재에 새로운 예술을 표방하였는데 이 유리 스타일을 ‘아르누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그때까지 획일화 된 램프(lamp)나 화병에까지 제작소재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더구나 그 크기나 형태를 자유롭게 전개하여 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20세기 초기의 리더였던 갈레가 죽은 후 급속히 아르누보의 양식은 퇴조하였고, 유리조형사에서 미국이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다.



<도판 3-2>Emile Gallé [Cameo glass lamp] 프랑스 1904

33) 엘러스테어 덩킨, [아르누보], 서울, 시공사, 1998, p.105

34) 필리프 티에보, [상징주의와 아르누보], 서울, 창해, 2002, p.27

갈레의 작품은 아르누보에서 차지하는 자연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갈레와 낭시의 미술가들은 아르누보와 자연의 대화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 “그의 빼어난 감각과 기술은 결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를테면 그의 새로운 기법들을 통해 우리는 갈레가 자연의 화려한 모습에 경탄하는 시인의 마음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³⁵⁾

(1) <도판 3-2> Flower pattern 테이블 램프(1904)

19세기 말 프랑스의 유리 세공 부분에서는 아르누보의 전형을 충실히 따랐으며 선구자로 나섰던 에밀 갈레가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되었다.

갈레가 추구하던 주제는 무엇보다 먼저 자연이었으며, 일련의 문학적 주제를 유리 세공 작품에 도입하면서 독보적이면서도 높은 예술성을 구가하게 되는데 1904년부터는 주로 cameo glass를 제작하였다.

3색의 빛으로 보이는 이 작품은 유리를 45도로 첩첩이 쌓아 만든 갈레의 cameo glass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갈레의 디자인은 유리를 변화무쌍한 예술의 한 형태로 만들었다. 그 전까지는 칠이나 그림을 그려 넣는 정적이고 다채롭지 못한 재료였던 유리가 울동감을 표현하고 무한정으로 색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내부패턴과 표면 질감을 지닌 매체로 변환시켰다. 몸체(base)와 갓(shade)부분이 모두 유리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에 걸쳐 꽃의 머리부분만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화려하고도 섬세한 갈레의 디자인을 볼 수 있다. 색상면에서는 주로 붉은색과 노랑색의 조화가 이루어진 것을 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인기에 힘입어 많은 수량이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3.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 (Louis Comfort Tiffany)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 (Louis Comfort Tiffany, 1848~1933)가 해석한 자연은 유럽의 아르누보와 상당히 다르다. 티파니는 초기에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였으나, 점차 이를 바탕으로 하여 평면적으로 자연을 양식화하였다. 그는 이러한 식물을 평면적으로 양식화하는 방식을 적용한 스테인드글래스를 사용하여 창

35) 필리프 티에보, [상징주의와 아르누보], 서울, 창해, 2002, p. 27

문, 꽃병, 램프(lamp) 등의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는 티파니가 해석한 식물모티브의 표현을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미국에서의 아르누보 운동은 티파니와 동일시된다. “티파니가 야생에 매료되었다는 사실과 일반 가정을 위해 미술품을 창조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녔던 점으로 보아, 그는 확실히 아르누보의 대열에 들어 있었다.”³⁶⁾

여러 디자인 중 식물의 뿌리, 줄기, 꽃잎이 하나의 가녀린 유기체의 형상으로 빚어진 꽃모양의 용기 시리즈가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그의 유리제조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방법의 스테인드글래스³⁷⁾ 제작기술의 발달로 이어졌다. 이어 티파니는 30년이란 세월에 걸쳐 유리에 대한 연구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어떤 빛깔의 유리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특히 ‘파브릴(Favrite)’³⁸⁾



〈도판 3-3〉 Louis Comfort - Tiffany
[Magnolia stained - glass] 미국

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낸 유리제품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색상을 연출했다. 이는 곧 티파니 제품의 특징이자 동시에 가장 큰 업적이 되었고, 이를 통해 형태와 질감 자체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식물적 모티브와 유기적인 곡선은 자연스럽게 등장하였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르누보 양식의 디자이너 중 한 사람인 티파니는 창유리, 램프, 화병을 대부분 사실적으로 묘사함에 있어 자연형태를 그 장식의 표현수단으로 선택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자연을 양식화하였고, 이러한 이상적인 표현으로 큰 명성을 떨쳤다. 티파니의 아름다움은, ‘자연이 최고의 디자인의

36) 엘러스테어 덩킨, [아르누보], 서울, 시공사, 1998, p.115

37) 스테인드글래스(stained glass): 전통적인 유리기법과는 달리 매우 우아하면서 화려한 장식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작방법 또한 어렵지 않다. 이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유리와 색을 규합하여 조화롭게 만들어진 색유리를 형태에 맞게 자른 다음 납 선이 아닌 라메(rame)라고 하는 청동 테이프를 유리 주위를 두른 다음 납으로 연결하고 그 납을 청동 색이나 검정 색으로 바꾸어 주어 납이 아닌 브론즈 질감이 나게 하는 방법이다.

38) 파브릴유리(Favrite Glass): 손으로 불어서 만든 무지갯빛 유리로 미국의 디자이너 라 파지와 티파니가 개발하였다. 파브릴상표는 1894년 티파니에 의해 등록되었으며 ‘손으로 만든’이란 의미의 옛 영어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영감'이라는 그의 확고한 신념에 그 기본을 두고 있다. 그는 끊임없이 꽃과 식물에서 찾아낸 풍부한 형태와 색감을 유리에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티파니의 작품세계를 크게 분류하면, 그 첫 번째 결과가 '파브릴유리'이다. 이는 그의 자연에 대한 열정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도전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파브릴과 그의 작품세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두 번째 결과는 '스테인드글래스'이다. 주로 등나무꽃이나 사과꽃 등을 소재로 하여 램프(lamp)를 만들거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꽃, 식물 등의 소재를 도식화하여 반복·재배치한 창문 등을 제작하였다.

티파니는 작품에 대한 무한한 근원은 자연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 형태나 색깔 또한 '자연'을 기준으로 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럽의 사실적·묘사적인 아르누보를 평면화·도식화하여 아르누보양식의 진일보를 이루었다.

(1) <도판 3-3>의 티파니 스테인드글래스 작품은 티파니의 아르누보양식을 대표하고 있다. 중세 스테인드글래스 관심을 가졌던 영국의 미술공예운동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티파니의 스테인드글래스는 색상이 화려한 것을 주된 특징으로 들 수 있으며, 주로 창유리, 가리개, 램프(lamp)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 장식적인 표현에 있어서 주로 중세의 모티브나 꽃을 위주로 한 식물 모티브를 사용하여, 이를 철저히 그 대상에 근거하여 새롭게 도식화하는 '조직적 자연주의'를 기본으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화려한 색채가 많이 사용된 점이 이채롭다. 스테인드글래스 창문으로 목련의 자연스러운 꽃잎형태를 최대한 살려 평면적으로 양식화하였다. 길게 늘어뜨린 줄기 사이사이에 꽃잎이 무리를 지어 배치되어, 형태에서 보여지는 공간적인 대조가 전체적인 조화를 이끌어낸다. 각각의 꽃잎 외곽선이 연결되어 마치 꽃이 만개하여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우아한 '선의 흐름'으로 나타낸다. 꽃잎의 크기를 원근에 따라 달리하여 평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선의 굵기와 면의 넓이의 조화가 전체적인 비례를 형성하고 있다.

4. 빅토르 오르타 (Victor Horta)

아르누보건축에 있어서 표면장식과 실내장식을 제외하고는 단일하게 통합된 아르누보 양식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피상적인 의미에서조차도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재료는 별로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아르누보의 '장식에 있어서 유연하고 부드러운 선

의 사용'과 '구조적 요소에서조차 일반적인 곡선의 강조'는 건축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났다.

아르누보의 건축에 나타난 식물의 모티브는 가장 대표적으로 유기적인 선형양식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식물의 줄기의 곡선이 추상적인 형태와 직선과 곡선의 적절한 배합이 이루어져 사용되었다. 식물의 줄기를 모티브로 한 곡선을 주로 사용한 대표적인 건축가로 빅토르 오르타 (Victor Horta, 1861~1947)를 들 수 있다. 그는 '공간에서의 선 운동'이라는 바로크와 로코코의 개념에 영향을 받았으며, 유기체의 성장과 비올레-르-뒤크³⁹⁾의 구조이론을 연구하면서 영감을 받았다.

오르타는 1893년 브뤼셀의 부호이자 엔지니어인 에밀 타셀을 위해 독특한 저택을 지어 그 명성을 얻었다. 건축물에서 최초의 아르누보양식의 작품인 브뤼셀의 「타셀 저택」은 구조가 단순하고, 실외는 물론 실내에도 금속 특유의 아름다움을 살린 점, 빛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중앙 계단 주변에 있는 통일감 있는 공간, 일관성 있는 실내장식(모자이크, 철제 공예품, 벽화, 스테인드글라스, 가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그는 실질적으로 '재료의 적절한 사용'을 주장하는 비올레-르-뒤크의 구조이론을 발전시켰다. 당시 비평가들은 이 건축물이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극히 독창적인 것이라고 극찬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계단실은 선적인 리듬이 얽혀져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장식적인 철제 난간, 벽, 마루 그리고 나선형의 휘어진 계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아르누보 건물들을 건축했다.

오르타는 아르누보를 대표하는 독창적인 장식언어를 만들어냈다. "오르타의 건축과 실내장식은 공간과 표면장식을 선형구성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내부에 적용된 모든 공예적인 장식요소는 불규칙한 방향으로 흐르는 듯한 곡선의 리듬에 종속되어 있고, 가는 철제기둥의 식물적인 선형장식은 주변공간으로 확대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는 공간을 환상적인 선형구성으로 종합시켜 아르누보의 곡선적 양식특성을 세

39) 비올레-르-뒤크(1814~1879): 프랑스의 건축이론가로서, A.르클레르의 제자로 H.라브루스트의 영향을 받았다. 많은 프랑스 중세건축의 수리와 복원에 활약하였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한 중세 디자인에 관한 저작은 근대건축이론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1863년, 1872년에 걸쳐 두 권으로 출판된 「대화록」에서 아르누보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는 과거의 건축양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현대적 재료의 정직한 사용과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표현에 대한 개발을 주장하였다. 19세기 후반의 건축가들에게 있어서 비올레-르-뒤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가벼운 금속뼈대인 보강재를 세우고 그 위에 석재를 덮는다는 선견지명적인 제안을 하였기 때문이다.



〈도판 3-4〉 Victor Horta [Tassel House] 브뤼셀 1893-1895 연철난간 & 모자이크바닥

부적인 공예요소에 이르기까지 잘 적용시키고 있다.”⁴⁰⁾

오르타의 표현은 벨기에의 상징주의에서 등장하는 곡선형태와 18세기 로코코양식의 식물장식이 주를 이룬다. 그의 건축에는 식물의 추상적인 나선형 문양과 유기적인 곡선이 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장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식물모티브에 의한 곡선의 장식 가치를 강조하여 장식과 평면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추구하였다. 또한, 그는 일본의 건축양식에서 나타나는 좌우대칭의 원칙을 버리고 굽이치는 곡선의 효과를 음미하는 동양의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이념을 건축양식에 도입하였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창안을 ‘철’을 사용해 섬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하여 그의 건

축은 자연스럽게 아르누보와 동일시되었다.

오르타의 작품은 가우디의 작품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표현요소들이 우아하며 섬세하고, 조각된 덩어리라는 개념보다는 ‘선(線)’이 단연코 우선된다. 개성 있는 많은 건축가들이 여러 맥락에서 아르누보와 연관되어 있지만, 오르타의 작품만큼 아르누보의 정통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은 드물다.

빅토르 오르타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한 아르누보건축에 나타난 식물모티브의 특징은 유기적으로 표현된 다양한 선형양식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식물의 줄기에서 비롯된 유기적인 곡선이 추상적인 형태와 조화를 이루며 표현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아르누보란 개념은 고도의 특별한 디자인과 장인 정신을 내포하였으므로, 당시 대규모의 대량 생산에 열중하였던 건축 분야에는 적합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르누보가 실제로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많이 탄생시키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20세기의 새롭고 실험적인 건축이 가능케 했던 창조적 정신에 실질적

40) 오영식, [아르누보 양식에서 공예의 공간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서울, 1995, p.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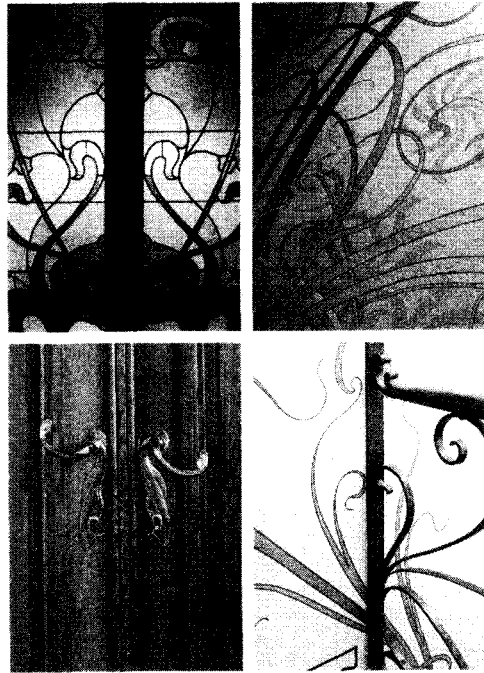
으로 기여했다.

(1) <도판 3-4> 는 타셀주택(Tassel House)의 입구로, “벽면과 바닥에 장식된 선형양식의 반복은 주철기둥의 입체선형양식과 어루러져 집전체가 마치 식물이 성장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현실로부터 벗어난 환상, 공중을 떠도는 듯한 느낌의 상징주의의 영향은 아르누보의 유기적인 선형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⁴¹⁾

오르타는 계단실과 실내를 아르누보 스타일로 장식하였는데, 길고 섬세한 곡선, 환상적인 백합의 줄기, 곤충의 촉수, 실 꽃 등이 서로 얽혀 있는 모양이 모서리에서부터 자라 나와 화면을 구불거리며 채우고 있다. 이와 같은 식물형태와 유기적인 곡선의 조화가 아르누보양식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디자인의 모든 요소들이 오르타의 곡선을 이용한 접근방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계단 난간을 장식한 유기적인 곡선의 섬세한 아름다움은 아르누보 건축의 가장 큰 특성으로 보여지는 ‘철’의 사용으로 한결 돋보이고 있다. 기존의 건축에서는 장식적 요소로 사용하지 않았던 철과 유리를 충분히 사용하여 유기적인 형태에서 비롯된 풍부한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다. 금속의 탄력적인 특성은 유기적인 식물의 형태를 표현하는데 적합했고, 이러한 유기적인 형태로 장식된 난간은 전체적인 공간의 연속성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아르누보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인 ‘재료·장식·기능의 통일’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판 3-5> 는 타셀주택(Tassel House)의 곳곳에서 보여지는 식물형태의 유기적



<도판 3-5> Victor Horta [Tassel House] 브뤼셀 1893-1895

- (1) 좌/상 - 주현관문의 스테인드 글래스
- (2) 우/상 - 계단벽화
- (3) 좌/하 - 서재 문손잡이
- (4) 우/하 - 계단의 금속장식과 벽화

41) 오영식, [아르누보 양식에서 공예의 공간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서울, 1995, p. 32

인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①에서 보여지는 주현관문의 스테인드글래스는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바탕으로 형상화되어 표현되어졌다. 이는 집의 들어서는 주현관에 이러한 장식을 함으로써 성장을 하는 상승의 기운을 표현하고자 했던, 이면의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②에서 보여지는 생명력이 있는 꿈틀거리는 듯한 유기적인 곡선은 장식 그 이상의 의미로 건물 내외(內外)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③은 브론즈로 된 문장식으로, 손잡이의 기능에 식물의 잎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표현되었다.

④에서는 계단 난간의 철제장식과 벽화가 맞닿은 부분으로, 마치 거울을 통해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면서 환상적인 느낌을 더하고 있다.

IV. 아르누보양식의 조형적 특성

아르누보양식에서 나타나는 식물모티브와 유기적인 곡선을 장신구·보석공예의 르네 랄리크(René Lalique), 유리공예의 에밀 갈레(Emile Galle)와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Louis Comfort Tiffany), 건축의 빅토르 오르타(Victor Horta)의 작품을 통하여, 다양한 해석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차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화려한 곡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르누보양식 특유의 장식미는 철저하게 자연형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잎장식·부드러운 윤곽선·꽃잎 장식은 아르누보양식에서 주로 표현되는 식물모티브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아르누보양식의 정신적인 기반이 된 상징주의에 입각하여 식물의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표현된 유기적인 곡선이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식물모티브에 대한 다양한 조형표현은,

(1) 장신구·보석공예의 르네 랄리크(René Lalique)는 표현방법과 주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식물모티브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반면, 세부적인 형태를 묘사함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주로 난꽃, 백합 등의 길고 가는 잎을 가진 꽃을 주된 식물모티브로 하여

‘사실적인 묘사’와 ‘단순한 곡선’과의 조화를 불림감 있는 ‘형태’와 유기적인 ‘곡선’의 조형요소로 표현하였다. 또한, 유리·빨 등의 기존에 쓰이지 않던 소재의 새로운 사용을 통하여, 아르누보양식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2) 유리공예의 에밀 갈레(Emile Galle)는 Ecole de Nancy의 영향으로 자연그대로의 식물형태를 선호하여,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꽃’과 ‘유기적인 곡선’을 주된 식물모티브로 하여, 인간의 정서를 자극하는 풍부한 상상력을 조화롭게 표현하였고, 다양한 기법과 색상의 표현으로 유리세공의 진일보를 이루었다.

(3) 유리공예의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Louis Comfort Tiffany)의 주된 장식표현요소로 ‘조직적 자연주의’를 기본으로 한, ‘양식화된 자연형태’를 들 수 있다. 이를 바탕

	작품에 나타난 특징	분야
르네 탈리크 (René Laliq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방법과 주제에서 전체적으로는 식물모티브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반면, 세부적인 형태를 묘사함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표현함. - 주로 난꽃, 백합 등의 길고 가는 잎을 가진 꽃을 주된 식물모티브 나타냄. - 유리·빨 등의 기존에 쓰이지 않던 소재의 새로운 사용. 	보석· 장신구공예 (프랑스)
에밀 갈레 (Emile Gal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그대로의 식물형태를 선호하여, 이를 그대로 묘사. (Ecole de Nancy의 영향) - ‘꽃’과 ‘유기적인 곡선’이 주된 표현 모티브. - 다양한 기법과 색상의 표현으로 유리세공의 진일보를 이룸. 	유리공예 (프랑스)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Louis Comfort-Tiff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화된 자연형태’를 주된 장식표현 요소로 함. - 중세의 스테인드글라스의 성공적 재현. - ‘파브릴유리’의 개발. - 화려한 색채. 	유리공예 (미국)
빅토르 오르타 (Victor Hor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에 식물모티브를 바탕으로 한 생명력 있는 ‘유기적인 선형양식’도입. - 장식·기능·구조·소재의 연관성 도입. - 새로운 소재인 ‘철’을 사용. - 건축의 내·외의 장식적 통일. 	건축 (벨기에)

<표 3-1> 아르누보양식의 식물모티브에서 나타난 조형분석 I

으로 하여, 보편적인 아르누보양식과는 차별되는 식물모티브를 작품에 적용하였다.

화려한 색채를 가진 중세의 스테인드글래스의 성공적인 재현과, ‘파브릴유리’의 개발은 그의 유리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4) 건축의 빅토르 오르타(Victor Horta)는 건축에 있어서 ‘구조와 장식’에 식물모티브를 바탕으로 한 생명력 있는 ‘유기적인 선형양식’을 도입하였다. 문과 문손잡이, 바닥, 벽, 계단난간, 조명, 가구 등 다양한 건축의 공간에서 철재, 모자이크, 스테인

	형태	표현방식	소재
식물모티브의 형태 + 유기적인 곡선 (형태+선)	사실적 형태묘사 + 합축적선	- 랄리크의 장신구에서 보여지는, 꽃과 잎 등에서 나타나는 사실적인 묘사 + 이를 연결하는 유기적인 곡선의 조화	- 원석을 사실적인 형태로 조각(뿔 등의 소재) - 에나멜을 이용 한 사실적인 표현(플리카 주르 등) - gold로 나타나는 유기적인 선
		- 갈레의 유리작품에서 나타나는, 꽃의 사실적인 묘사 + 이를 통하는 유기적인 선의 조화	- 조각의 기법으로 사실적 형태묘사 - 다양한 색상의 풍부한 표현
	형태 + 선	- 티파니의 파브릴유리작품의, 전체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표현 - 티파니의 스테인드글래스에서 보여지는, 평면화·도식화 된 꽃과 잎의 형태 + 형태의 경계선과 연장선이 되는 유기적인 곡선의 조화	- 파브릴유리 : 전체 형태의 사실적 표현(전등갓, 화병) - 스테인드글래스 : 형태를 도식화하여 전체적으로 펼쳐서 표현 + 형태의 경계가 되는 유기적곡선 (창유리, 전등갓)
유기적인 곡선 (선+선)	유기적 곡선 + 구조적선	- 오르타의 건축물 내외에서 보여지는, 장식적인 요소로의 유기적인 선 + 건물 구조에서 나타나는 선(곡선 또는 직선)	- 철재의 탄성을 이용한 곡선의 장식적 표현 + 건물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선의 조화

<표 3-2> 아르누보양식의 식물모티브에서 나타난 조형분석 II

드글래스, 벽지, 패브릭 등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식물모티브의 선형양식을 볼 수 있었으며, 새로운 소재인 ‘철’을 사용하여 ‘장식·기능·구조·소재’의 연관성을 건축방식에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아르누보양식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식물모티브는 장식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기능적인 특성과 잘 조화되어 발전되어 나아갔음을 알 수 있었다. 아르누보에서 나타난 꽃과 넝쿨의 식물모티브와 이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선은 장신구, 유리등의 공예분야에서는 그 예술성을 창조하였고, 건축에 있어서는 표현양식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는 식물의 사실적인 묘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장식에 그치지 않고, 장신구와 유리, 가구 등의 공예와 건축에서 그 각각의 기능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표출되어 나타났음을 볼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아르누보양식에서 나타난 식물모티브의 조형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분류하였다. <표 3-1> 은 위의 4명의 작가의 작품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그 특징에 따라 분류하였고, <표 3-2> 는 이에 나타난 결과를 표현된 식물모티브의 조형을 형태와 표현방식에 의해 분석한 결과를 분류하였다.

V. 결론

현대에 이르러 비인간화·획일화되어 가는 예술을, 100년 전 자연물의 유기적인 형태로부터 모티브를 찾아 장식미술에 적용한 아르누보양식을 통해 다시금 인간본연의 ‘자연성과 예술성의 조화’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아르누보의 식물적인 모티브와 이에서 파생된 유기적인 곡선을 도입, 인간본연의 감성인 ‘자연성’을 바탕으로 한 형태와 표현의 특성을 분석하여 현대적 디자인의 조형요소를 찾아보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르누보양식의 식물모티브가 갖는 조형적인 특성이 다양한 장식예술을 비롯한 디자인에도 창조적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식물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곡선’은 작품에 있어 아르누보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식물모티브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아르누보

양식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실용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자 하였다. 특히 20세기와 21세기를 거치며 나타난 아르누보, 아르데코,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다양한 양식 중 식물모양을 형상화시킨 곡선양식으로 대표될 수 있는 아르누보양식을 통해 생명력을 바탕으로 하여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자연과 인간’을 매개할 수 있는 곡선적인 아르누보 정신은 디자인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승·존속되어지리라 생각된다.

아르누보의 식물모티브만을 분석하여 디자인에 수용함으로써 아르누보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를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며, 예술사에 근거를 둔 다각적인 조형분석을 통하여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스티브 에스크릿, 정무정 옮김, 『아르누보』, 한길아트, 2002.
- 열화당 편집부, 『현대 미술용어 사전』, 열화당, 1984.
- 에드워드 루시, 이대일 옮김, 『상징주의 미술』, 열화당, 1987.
- 엘리스테어 덩컨, 고영란 옮김, 『아르누보』, 시공사, 1998.
- 장폴 뷔용, 윤철규 옮김, 『아르누보』, 열화당, 1990.
- 질 장티·로랑 우세·세브린 주드·필리프 티에보·프랑수와 베르뉴, 신성림 옮김, 『상징주의와 아르누보』, 창해, 2002.
- 클레어 필립스, 김숙 옮김, 『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1999.
- Clotilde Bacri, 『DAUM- Masters of Decorative Glass』, Thames & Hudson, 1993.
- Eric Knowles, 『MILLER'S ART NOUVEAU』, Miller's, 1992.
- Jacob Baal-Teshuva, 『Louis Comfort Tiffany』, TASCHEN, 2001.
- Kenneth Snowman, 『The Master Jewelers』, Harry N. Abrams, 1990.
- Klaus-Jürgen Sembach, 『ART NOUVEAU』, TASCHEN, 1999.
- Martin Battersby, 『Art Nouveau Style』, Hamlyn Publishing group, 1969.
- Paul Greenhalgh, 『The Essence of Art Nouveau』, Harry N. Abrams, 2000.
- Tracy Tolkien & Henrietta Wilkinson, 『Costume Jewelry』, Thames & Hudson, 1998.

- Vivienne Becker, 『Art Nouveau Jewelry』, E.P. Dutton, 1985.
- Vivienne Becker, 『Art Nouveau Jewelry』, Thames & Hudson, 1998.
- 고명진, 『현대 장신구에 있어서 아르누보의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김윤희, 『아르누보양식의 스테인드글라스 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주연, 『아르누보양식을 통한 식물의 도자조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주화, 『아르누보 표현특성을 통한 여체도자조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오영식, 『아르누보 양식에서 공예의 공간적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유사라, 『아르누보양식의 조형미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윤성희, 『아르누보양식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이미경, 『아르누보양식에 나타난 무늬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장순찬, 『Art Nouveau Fashion』,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전용일, “René Lalique의 금속공예” 『국민대학교 조형논총 제13집』, 국민대학교 조형연구소, 1993.
- 장영주, “아르누보양식의 가구 연구” 『디자인 과학 연구』, 2002.
- 이지현 & 이형규, “아르누보 주얼리의 디자인 경향에 대한 연구” 『디자인 과학 연구』, 2002.
- 최정호, “새로운 예술(art nouveau)과 새로운 예술” 『계간사상』, 2001 봄호.

■ ABSTRACT

**A Study of formative character of Art Nouveau Through the works of
René Lalique, Emile Galle, Louis Comfort Tiffany, Victor Horta**

Kim Eun-Jung

When it comes to art, the two conflicting themes of ‘scientific progress’ and the ‘nature’ have often motivated the advent of the new mode of arts. By the late 20th century, uniform and simplified mode of arts, inspired b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of that time, was gradually disillusioned by the contemporaries due to the adverse effect of science on human life. In this context, naturalism pursuing for harmony of human and the nature came up as an alternative to those living in the 21st century. The pendulum has swung from minimalism to naturalism.

Though the quantitative improvement of human life cannot be denied, the uprise of such problems a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xhaustion of natural resources degraded the quality of human life, which, eventually, shifted the attention to the theme - ‘revival of naturality.’

Therefore, this thesis intends to represent the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revival of naturality’ by applying the major expressions of Art Nouveau that also emphasized naturalism.

Art Nouveau found its motifs from organic figures of natural beings and put them to designs of decorative arts. This carries a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Art Nouveau boldly revolutionized historicism, which only repeated adoption and modification of the existing modes of arts, and opened it to the modern design with new attempts to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arts. Art Nouveau, which means ‘new art’, prospered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and even after one century, it is highly appreciated, reviving as novel and vivid forms in this contemporary art.

Art Nouveau based on naturalism has revisited our contemporary period when

naturalism and feminized romanticism came into fashion and its common motifs revive in different genre of arts such as fashion, furniture, glass works, and jewelry works.

This study illustrates and analyzes the works of four major artists who gave a specific attention to botanical motifs of Art Nouveau and applies decorative beauty of highly sophisticated and organic curved lines and the expressional forms of botanical figures to design.

Art Nouveau proved this; the nature herself is as beautiful as she can be. Within Art Nouveau, the true humanism can be revitalized with the 'revival of naturality'. This study rediscovered the boundless potential of moder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 Nouveau in decorative art and design.

Key Words : Art Nouveau, Jewelry, Design, Decorative art, René Lalique